

개원집에게 10
33
1974-2014

문다

40

조사회역사 40년

Gallup

Quality First

since 1974



조사회조사 40년



1970's

- 1974.6.17 Korea Survey Polls 창립
- 1974. 첫 프로젝트, 금성사 세탁기 조사
- 1978. '갤럽의 여론조사' 번역본 출간
- 1979. Gallup International 회원사 가입
- 1979. 한국갤럽조사연구소로 사명 변경
- 1979.12 첫 옴니버스 조사, End of Year Poll 실시

1972.

카피라이터로 이름 날리던 박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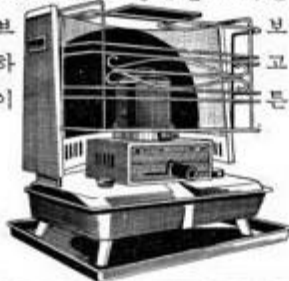


조국근대화와 번영의상징

안방의 태양!

태양이 아쉬운 계절, 피부가 거칠어지기 쉬운 겨울. 당신의 안방에 태양이 솟게 합시다.

금성적외선 스토브는 금성사만의 내열 유리 연소통을 통해 보통스토브보다 3배나 강한 적외선을 방사하여 여름 햇볕같이 따뜻한 피부를 가꿔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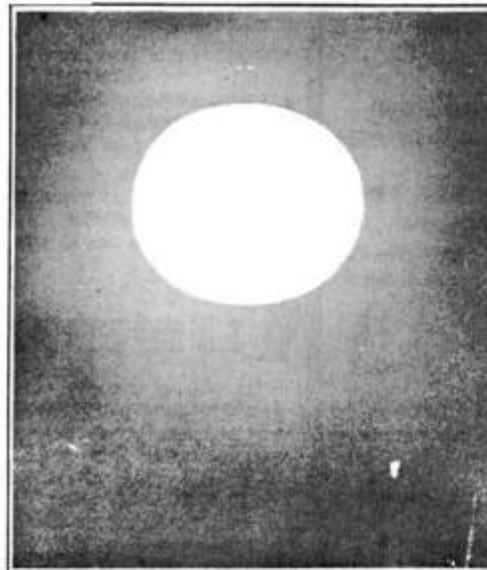


5가지 MODEL

- SR-5050 (동대식 복사형 - 5열)
- SR-5060 (직외선 복사형 - 5열)
- SR-6010 (직외선 복사형 - 6열)
- SC-9010A (반사대류형 - 9열)
- SC-2010 (취사기능 겸용 - 5열)

건강과 안전의
이상설계 70년도

금성적외선 스토브



안전 특수장치를 갖춘

정액제이고 영도율이 청동만 이상설계로 정액되는 금성적외선스토브는 5000원 이상 설치비용 거지 확인 자동정화 스텝터. 정전용량제한 특수 정전 보호장치를 갖추어 안전 설치가 보장되며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내실것입니다.



금성적외선 석유난로

- SP-1520A (모트식 대류형 - 28열)
- SP-3020A (모트식 대류형 - 40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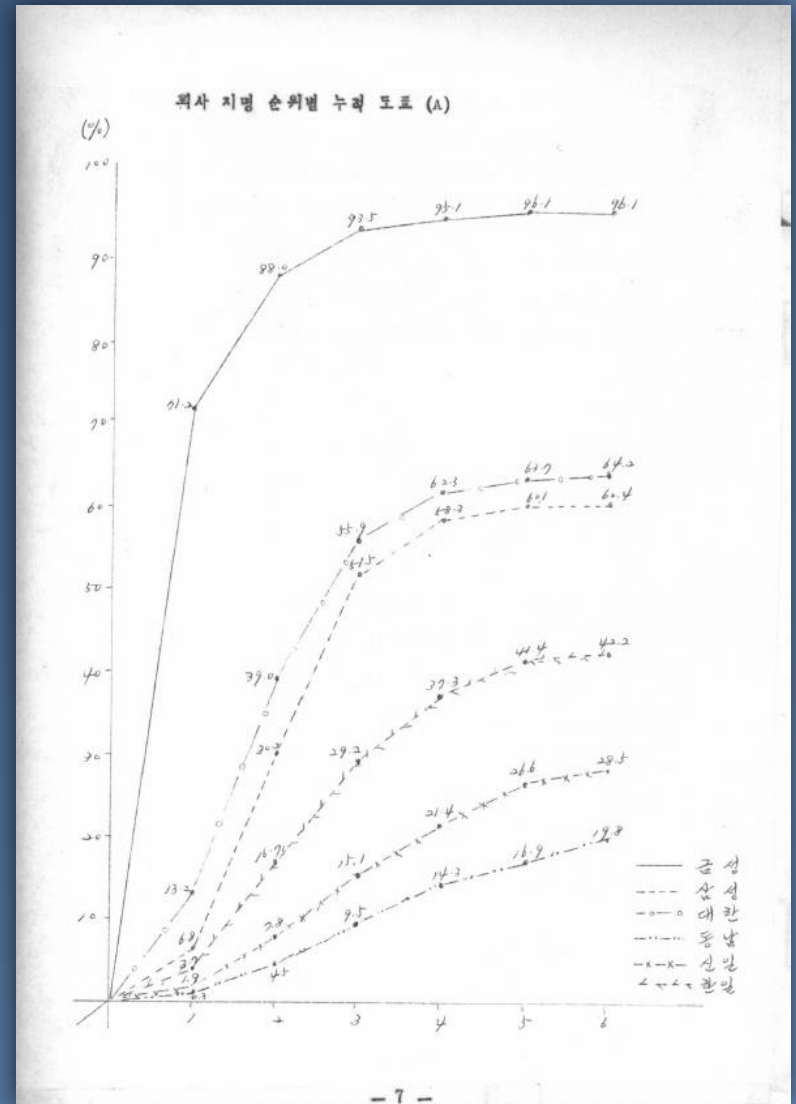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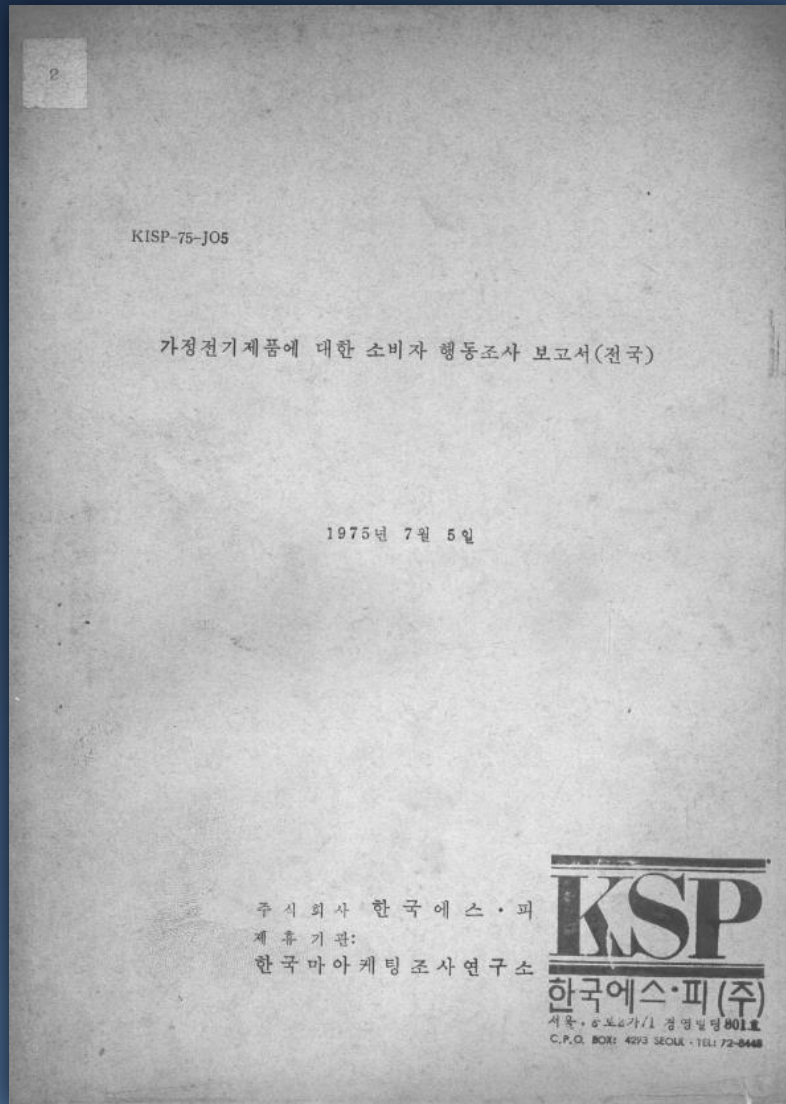
금성판매주식회사
Gold Star Sales Co., Ltd.

1974.6.17

조사회사 Korea Survey Polls 설립
서울 종로2가 경영빌딩 8층



1975. 금성사 가정전기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조사 보고서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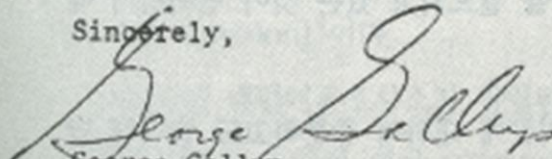
조지 갤럽 박사, 친필 편지로
저서의 한국어 번역본 출간 허락

Dear Mr. Park:

Thank you for your recent letter. You have my permission to reprint into Korean my book, THE SOPHISTICATED POLL WATCHER'S GUIDE. You have undertaken a big task and I wish you l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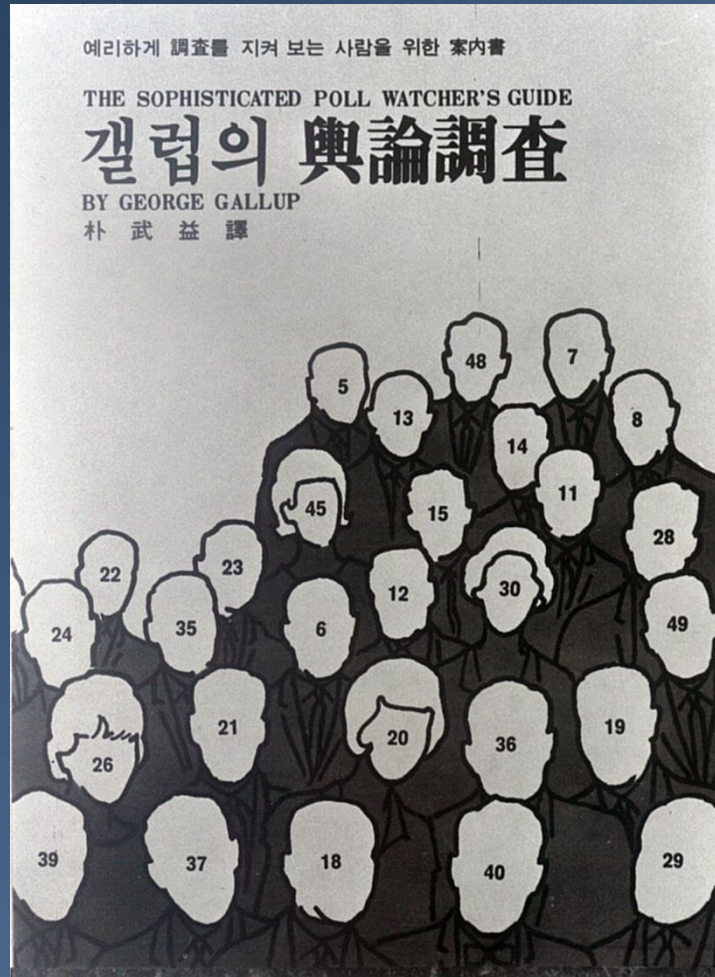
I look forward to receiving a copy of the book when it is published in Korea.

Sincer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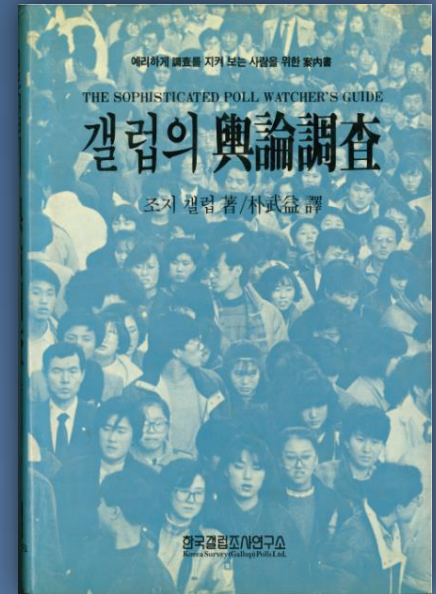

George Gallup
GG/st

1978.

‘갤럽의 여론조사’ 번역서 초판 발행



<갤럽의 여론조사> 1978년 초판



1989년 개정판

1979.5

Gallup International 회원사 가입

KSP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로 사명 변경



1979.12.

첫 옴니버스 조사,
'End of Year Poll' 실시

110만원에
全國調査가 가능합니다



Only
One.

단 하나뿐인 갤럽전국옴니버스조사 프로그램

지금 나가고 있는 廣告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新製品의 특징을 소비자는 얼마나 살 것인가?
우리제품과 경쟁제품의 市場占有率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매주 당면하게 되는 Marketing의사 결정에서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옴니버스조사(Omnibus Survey)를 이용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옴니버스조사란 질문개수별로 이용하는 형식으로
전국을 일주하는 고속버스의 좌석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 경영컨설팅,
학계(박사논문), 언론기관, 정부기관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갤럽만이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조사프로그램입니다.

갤럽 성인옴니버스(GOS-Adults)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우리나라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 1,5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1:1 개별면접으로 진행됨

갤럽主婦옴니버스(GOS-Housewives)

매분기 1회(년 4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전국의 주부 1,2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1:1 개별면접으로 진행됨

QUALITY
RESEARCH
Since
1947

Gallup KOREA

*Stapel Scale

■ +5

■ +4

■ +3

■ +2

■ +1

□ -1

□ -2

□ -3

□ -4

□ -5

一流는
一流調査를
이용합니다

한국갤럽 GALLUP KOREA

110-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 화: (02)3702-2100 FAX: (대표) (02)3702-2121

1980's

- 1981. 18개국 공동 인간 가치관 비교 조사
- 1981. 종로구 사직동 고려빌딩으로 사옥 이전
- 1983. '한국인의 종교 의식' 1차 조사 실시
- 1985. 샘플링 프로그램 개발
- 1987. 소매점 지표 조사, 프로그램 POS 시스템 개발
- 1987. 광고효과 측정 프로그램, AD-Score 출시
- 1987.12 제13대 대통령 선거 예측 발표, 적중
- 1988.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정치지표 정기조사 시작
- 1988. 최초의 중국, 소련 조사

1981.

종로구 사직동 221
고려빌딩으로 사옥 이전



1987.

POS Sotre Index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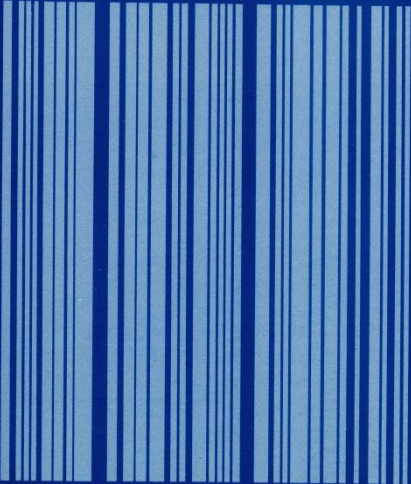


한국갤럽-최신의 流通 Marketing 調査 프로그램



食品·雜貨 Marketing의 核心 데이터

POS Store Index®



한국갤럽조사연구소
Korea Survey (Gallup) Polls Ltd.
서울 중로구 사직동 221 Tel. 736-8448-8828

수퍼마켓·연쇄점에서 더 많이 팔기를 원하십니까?



구매現場(On the Spot)에서 체크하는
POS Store Index® 에게 물어보십시오.

최신의 流通 Marketing 調査
POS Store Index® 販賣현장指標 조사
지금 歐美諸國에서는 수퍼마켓, 연쇄점
에서 팔리는 商品(Food & Groceries
Goods)의 流通調査에 POS Scan
조사의 등장으로 혁명이 일어났고 본격적
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유용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는 이 조사의
원리를 이용하여 POS Store Index를 개
발하였습니다. POS Store Index는 全國
의 400개 상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구매자가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現場에서
(On the Spot), 관찰자가 각 상품의
商標, 용량, 포장, 개수, 금액을 바로 체크
하는 혁신 마케팅조사 방식입니다.



食品·雜貨 Marketing의 核心 데이터

POS Store Index®

매달 食品·雜貨 Marketing의
核心 데이터 제공

- **購買者지표**: 누가 직접 사는지 성
(Sex), 나이 (Age) 별로 알려드립니다.
- **流通지표**: 현재 全國의 상점에 귀사
와 경쟁사 商標의 취급율을 市道別로
제시해 드립니다.

● **販賣지표**: 1) 각 商標의 占有率을 全
國의 市道別로 시계열별로 제공합니다.
2) 팔리는 각 商標의 용량, 포장단위,
개수, 금액까지 체크됩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울 중로구 사직동 221 Tel. 736-8448-8828

1987.

TV광고효과 측정 프로그램 AD-Score 출시



The Korea Gallup

한국갤럽 - 국내최초 컴퓨터에 의한
TV 廣告效果 측정 프로그램

秒單位로 TV-CF의 反應을 추적하는
AD-Score®

한국갤럽조사연구소
Korea Survey (Gallup) Polls Ltd.
서울 중로구 사직동 221 Tel. 736-8448 8828

1987. 10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 업무 제휴

北韓의
다

을 大入門 더욱 좋아진다

前期大 평균 4대1 예상

朝鮮日報

1920年 3月 5日 創刊
發行人 萬方一 榮
社長 萬方又 榮
發行人 申東 潤
編輯人 盧錫昌 安 勳
서울市 中區 太平路 186번
(郵政特種 100)
購読料 月別 2800원
1部 1400원
電話室內 731-8114
編輯部 731-8332
731-8333
廣告部 731-8514
731-8521
國際申請 731-8463
定率部 731-8463
本誌는 新聞流通發展院
에 登記 韓國新聞 國守한다

卒定制 폐지로 모집 감축 「先지원」다른「前期러시」로

【서울 10일 특파원 리영환 기자】 1988년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先지원'과 '前期러시'가 주목받고 있다. 수험생들은 '先지원'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고, '前期러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善心공세 타락選挙양상

金泳三출세 신진人士 영입 黨쇄신

【서울 10일 특파원 리영환 기자】 1988년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先지원'과 '前期러시'가 주목받고 있다. 수험생들은 '先지원'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고, '前期러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불참국 초청제외

의후청고



◇새벽歸京 9일 낮2시40분 광주를 떠나 10시간이넘은 10일새벽 1시를 겨우 겨우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대합실을 빠져 나오고있다. 이날 터미널은 고속도로 상행선이 수색원류를 끊은 귀경차량들로 심한 교통정체를 빚어 차량이 새벽4시까지 출장이 계속됐다. <가사 11면·사진-송재환기자>

本社「輿論조사 전담기구」설치

韓國輿論硏과 제휴...수시調査 보도

【서울 10일 특파원 리영환 기자】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한국갤럽과 제휴하여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도할 예정이다. 이는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左傾” 더이상 방관못해

丁一權씨등 중심「自由수호聯」결성

19년 結成모임

연금보험
부부연금보험
노후설계연금
다민연금보험

英BBC라디오
韓國語방송
한국어 방송을 통해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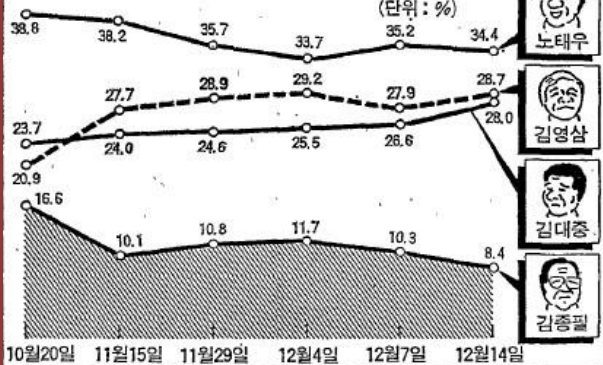
1987. 12

제13대 대통령선거 예측 발표, 적중

4 후보 得票率 예측 적중

朝鮮日報-갤럽연구소 共同 여론조사 6차례

네 후보 支持度는 어떻게 변해왔나 (단위: %)



盧泰愚 34.4
金大中 28.0
金鍾泌 8.4
金泳三 28.7

誤差한계 2% 안팎에 일치

투표 2일 전을 예상

朴武鎭 한국갤럽연구소장 인터뷰



여론조사는民主정치의핵심

朴武鎭 한국갤럽연구소장 인터뷰

○朴武鎭 한국갤럽연구소장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정치의 핵심은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朴武鎭 한국갤럽연구소장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정치의 핵심은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朴武鎭 한국갤럽연구소장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정치의 핵심은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民心동향 파악, 효과적 대응 가능

후보별 支持度 공개 못한 건 유감

朴武鎭 한국갤럽연구소장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정치의 핵심은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投票 선거날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

	盧泰愚	金大中	金鍾泌	金泳三
대통령	20.5	37.4	31.2	10.9
대통령	27.7	33.2	30.3	8.5
대통령	41.0	24.4	25.8	9.7
대통령	55.3	15.4	23.4	5.9
대통령	49.6	14.1	28.5	7.6
대통령	34.6	24.3	31.1	9.9
대통령	29.6	36.2	26.0	7.9

4%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28.7%, 민주당의 김大中 후보가 28.0%,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8.4%,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16.6%였다. 여의도에서 10.6%였다.

3차조사 (11월27~28일)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28.7%, 민주당의 김大中 후보가 28.0%,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8.4%,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16.6%였다. 여의도에서 10.6%였다.

3차조사시점 이후와 4차조사시점 사이의 KAL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28.7%, 민주당의 김大中 후보가 28.0%,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8.4%, 민주당의 김종삼 후보가 16.6%였다. 여의도에서 10.6%였다.

1990's

- 1990. 피플미터시스템 개발, TV시청률 조사 시작
- 1992. 여론조사 전문 격월간지, '갤럽리포트' 창간
- 1994. 강남구 신사동 두원빌딩으로 사옥 이전
- 1995.5 Gallup International 서울 회의 개최
- 1995.6 제1회 지방선거 예측 발표, 적중
- 1996. 조사 결과 전문 데이터베이스, GallupDB 서비스
- 1996.12 종로구 사직동 현 사옥으로 이전
- 1997.12 제15대 대통령선거 역대 최소 오차로 적중
- 1999.6 창립 25주년 '한국갤럽의 어제와 오늘' 발행

1990.

피플미터시스템 개발,
TV시청률 조사 시작



1992.

여론조사 전문 격월간지,
'갤럽리포트' 창간

갤럽리포트

Social and Marketing Trends

The Gallup Report

1992년 5~6월호(통권제1호) 개월간/발행일 1992년 6월 20일/등록 1995.9.7자-1995/발행인 차종환/편집인 송병환/발행처(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울 중구 서대문로 221/전화 733-0814, 730-3251/팩시 730-6066

Report No.1

MAY/JUNE 1992

한국인의 여론지표(Opinion Index)		
여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여론조사	전체 국민의 반수가 여사인정 동의	4
14대 국회의원 총선 추이비교조사	후보선택기준 '인품' 13대보다 10% 증가	8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조사	경제발전 기여도, 70.4%가 긍정적 평가	14
주한 외국인이 본 한국, 한국인	한국하면 '친절' 한국인은 '감정적' 이미지	18
한국인의 생활지표(Lifestyle Index)		
한국인의 문화생활지표	우리나라 국민 1년 동안 3명 중 1명이 영화관람	25
추석명절 귀향실태	국민의 1/3이 귀향, 경남이 41.9%로 가장 많아	28
마케팅 지표(Marketing Index)		
한국 성인남녀가 좋아하는 색깔	여자는 빨간색, 남자는 파란색, 흰색 선호	34
가구내 변기 사용실태	우리나라 좌변기 사용가구, 전체의 44%	38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	정수기 사용 주부, 수도물에 불신 강해	41
사회조사연구 리포트(Social Research Report)		
전국 TV 및 VTR 보유실태조사	TV보유율 99.2%, VTR 54.2%	44
대중매체 접촉실태와 만족도	대중매체 의존도 TV, 신문, 라디오 순	54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표준조사방법		6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Korea Survey (Gallup) Polls Ltd.

1994.

강남구 신사동
두원빌딩으로 사옥 이전



1995. 6 Gallup International 서울 회의 개최



1995. 6

MBC-한국갤럽 제1회 지방선거 예측 발표



한국갤럽의 '95년 15개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측과 적중

문화방송(MBC-TV)은 6·27지방선거 투표마감 직후인 6월 26일 오후 6시 1분, 한국갤럽이 행한 15개 광역단체장 선거예측을 발표하였다. 한국갤럽의 선거예측치와 실제투표결과는 지역별로 평균 3.7%의 오차를 보였으며, 15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예측의 적중은 물론, 각 지역별 후보자의 순위까지 적중시켰다.



광역단체장선거 예측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박무익한국갤럽소장(MBC-TV, 좌측)

1996.

제1회 지방선거 투표행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행태 선거여론조사 시리즈 발행

QUALITY
RESEARCH
Since
1974

Gallup
KOREA

選舉연구를 위한 2권의 책

우리 政界, 學界, 언론기관, 사회단체 및 사회과학도들에게
한국갤럽의 노하우와 함께 정확한 여론조사자료를 최초로 공개한 책!!



제15대 國會議員選舉 투표행태

'96년 韓國政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선거여론조사자료집

'96년 4월 11일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국의 방송 3사(KBS, MBC, SBS)가 선거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총선사상 처음으로 개표 전 '여당압승'이란 선거예측을 행하여 전국민들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빅 이벤트!! 도대체 선거여론조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정확한 선거예측조사를 행했던 한국갤럽이 총선 한달 전부터의 사전조사와 투표당일조사 및 사후여론조사를 통해 각 후보의 지지도 변화추이, 지지이유, 선택과정, 영향을 준 사건 등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밝혀주는 선거여론조사 자료를 공개한다.

●46배판 / 392쪽 / 값30,000원



6·27 地方選舉 — 그 勝敗요인 최초 공개!!

韓國人의 投票行動

'95년 地方選舉 輿論調査資料集

'95년 6월 27일 오후 6시(01분, MBC-TV는 한국갤럽이 예측한 15개 광역단체장선거조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TV개표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밤 10시가 넘어가자 실제 개표결과가 갤럽의 선거예측치와 일치해가는 '여론조사 TV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바 있다.

어떻게 한국갤럽은 15개 광역단체장의 당선자는 물론 순위까지 的中시킬 수 있었는가?

선거과정 동안 후보자의 지지도는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46배판 / 384쪽 / 값30,000원

한국갤럽 GALLUP KOREA

110-054 서울특별시 중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100 / FAX (02)3702-2121

판매처: > 고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영풍문고, 서울문고, 영광도서(부산) 지방에서는 (02)3702-2640으로 전화주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1996.

조사 결과 전문 데이터베이스 GallupDB 서비스 시작

QUALITY
RESEARCH
Since 1974
한국갤럽 22년

一流の一流調査を 提供いたします

여론조사

Gallup DB

열리다

이제, Gallup의 자료실에 On Line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사업계를 이끌어온 한국갤럽 22년!!
정확하고 수준높은 조사로 우리나라민의 68%가 이름을 알고 있는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DB>의 문을 엽니다(총5,000여건 수록).
미국 Roper Center의 여론조사 DB수준을 지향하는 Gallup DB.
이제, 우리나라 學界, 言論界, 사회단체, 연구소도
수준높은 Gallup여론조사 활용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母集團으로 한 수준높은 Gallup의 조사자료
■Social demographics별(성, 나이, 교육, 직업, 지역, 소득)교차집계
■時系列 비교(Time Series Analysis)자료제공

점속▶ 접리안 초기화면 12번(뉴스/잡지), 16번(경제/산업)
or 'Go Gallup'

Gallup DB의 주제분야

1. 총력 2. 정치 3. 행정 4. 외교/국방 5. 국제/국가 6. 경제 7. 산업 8. 정보통신
9. 교통 10. 기업 11. 노동 12. 사회 13. 교육 14. 종교 15. 문화/예술 16. 스포츠
17. 라이프스타일 18. 관광 19. 과학기술 20. 환경/공회 21. 의료/보건 22. 대중매체/광고 23. 상용

The Korea Gallup

한국갤럽조사연구소
Korea Survey(Gallup)Polls Ltd.
1974/1975 KOREA GALLUP POLL 1996

1996. 12

종로구 사직동 208
현 사옥으로 이전



1997. 12

제15대 대통령선거 예측, 최소 오차로 적중

< 1997 12 20 > 한겨레 **이동** 공감게시판

23 / 32

한겨레

방송

6시 전격 승부수...4시간뒤 "됐어"

방송 3사 합의 깬 MBC
예측보도 '개가'
1%이내 적중률 돋보여

18일 밤 10시 문화방송 1층 개표방송 스튜디오. 문화방송 선거기획단 실무자들은 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개표방송이 작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이회창 후보 우세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날 투표감 직후인 오후 6시1분에 김대중 후보가 회창 후보보다 1% 포인트 앞선다는 투표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한 선거기획단 실무자들로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돼 2위의 실제 득표결과가 바뀌길 경우 엄



문화방송이 18일 밤 11시40분에 예측 프로그램인 원-원시스템을 처음 가동해 각 후보의 예측득표율(중간)과 실제 득표율(맨위), 한국갤럽의 투표자전화조사결과를 서로 비교한 화면.

투표자 전화조사의 1.2% 지지도 차이가 오차한계인 $\pm 2\%$ 범위안에 있다는 점을 방송을 통해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에 따른 이목을 생각하면 이런 오차조차 면피가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10시15분, 선거기획단 실무자 한사람은 결국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각 선거구별 개표상황 확인에 나섰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날 방송협회의 예측보도 자체 결의에 배치되는 전화조사 결과 방송 강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실무자는 그때까지 미개표 선거구 27개 중 김대중 후보 우세지역 16개 지역의 투표합이 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2분 뒤 '예정된 대역전 드라마'는 막이 올랐다. 순위뿐 아니라 1,2,3위간 득표율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문화방송 개표방송의 개가는 야당후보의 당선을 주저없이 예고했다는 점에서 더욱

국적이다. 실제 김대중 39.9%, 이회창 38.9%, 이명박 19.6%의 예측치는 세후보의 실제 득표율과 비교해 모두 1%포인트 이내의 정확성을 자랑했다. 그것은 "선거방송에서 앞서는 게 향후 시청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비롯됐든, 혹은 "시청자와의 약속이 방송사간 합의사항보다 중요했다"는 시청자 알권리 차원에서 단행됐든, 어-야당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결과에도 기꺼위한 도전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기간 중 다른 방송사에 비해 비교적 공정보도태도를 견지한 문화방송 직원들의 자발적인 분위기도 과감한 승부수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 여기에도 철저한 면접원관리와 교육, 한국적 질문방식 개발 등 앞서가는 조사기법을 동원해 조사의 정확성을 기한 한국갤럽의 장인정신이 한판 통계학의 예술을 벗어

난 것이다.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2.9%포인트 앞선다는 자체 투표자 전화조사결과를 보도하는데 주저했던 방송공사 경영진의 태도와 비교하면 이런 점은 더욱 도드라진다. 평소 방송사 안팎의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했던 방송공사 경영진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적 판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방송공사는 개표집계상황을 다른 방송사보다 한발 앞서 보도하는 신속성을 보였으며, 화면 내용도 일목요연하고 깔끔한 그래픽 구성으로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화면 아랫 부분에 넣은 전국 개표집계 수치는 주요소 미터기 돌아가듯 득표수와 득표율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이색방식을 사용해 박진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도형 기자

'통계학의 예술' 갤럽 여론조사 비결

39.9% 대 40.3% (김대중 후보), 38.9% 대 38.7% (이회창 후보), 19.6% 대 19.2% (이명박 후보). 앞의 수치는 여론조사 결과이고 뒤는 각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다. 한국갤럽은 어떻게 대선결과를 미리 안 것처럼 정확한 예측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을까. 18일 오후 6시1분 문화방송을 통해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과 비교해 세 후보 모두 0.5% 포인트 미만의 오차를 기록하는 정확성을 보였다. 이 조사의 허용표준 오차가 $\pm 2\%$ 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 대전 등 몇몇 지역별 예측률이 허용오차를 넘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면접원 철저한 교육 한국적 설문 100% 예측률 도전

한국갤럽측은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비결로 면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 한국적인 설문방식 채택, 산술적인 오차한계를 뛰어넘는 장인정신을 꼽았다. 예컨대 누구를 찍는 게 좋겠느냐고 물으면 즉답을 피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해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 좋겠느냐는 식의 간접질문 방식을 도입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1.2% 후보간 지지도가 1% 포인트 밖에 차이 나지 않은 결과를 발표하자고 방송사측에 과감하게 주장할 정도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박무의 한국갤럽 소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운도 따랐지만, 기본적으로 1.2%의 득표율은 다소 차이가 날지 몰라도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선거 사흘전 이득될 문화방송 사장에게도 순위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투표 당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연 <한겨레> 여론조사팀장은 "공식선거운동 이후 한국갤럽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는 1.2%의 순위가 뒤바뀐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한국갤럽은 기본적으로 실제조사 과정의 과학성과 분석기법도 뛰어나지만, 특히 정치여론조사에서 풍부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판세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도형 기자

박무의 한국갤럽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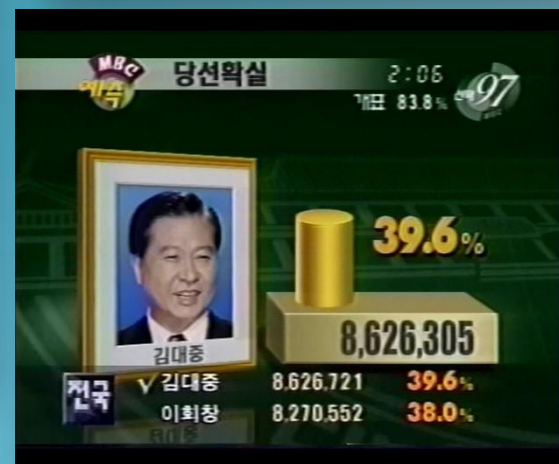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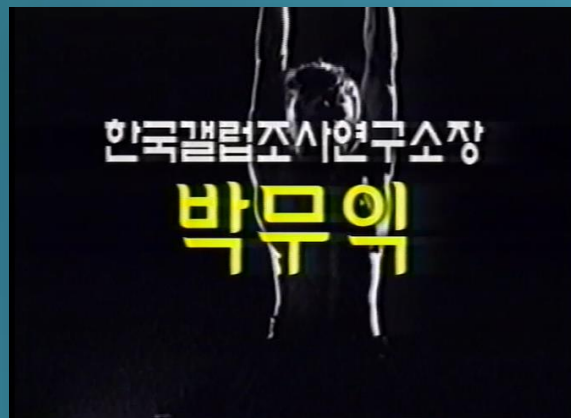


2000's

- 2000. 박무익,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출연
- 2001. 온라인조사 패널 모집
- 2003. 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갤럽 논문상 제정
- 2004. 공공기관-행정서비스조사 부문 확장
- 2004. 사옥 리모델링 완료
- 2004.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한강유람선)
- 2005. 한국유니세프위원회 후원 협약
- 2006. 한국통계학회-한국갤럽 학술상 제정
- 2007. 사옥 하늘공원 '인왕마루'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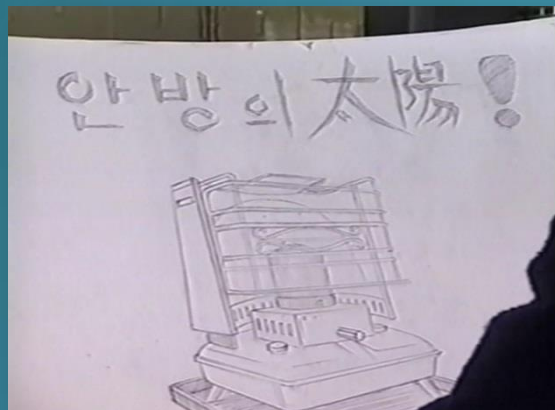
2000.

MBC '성공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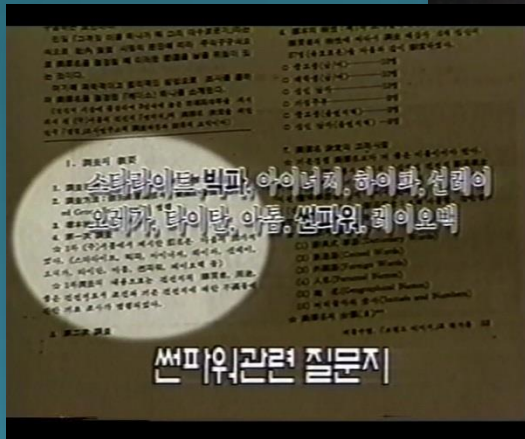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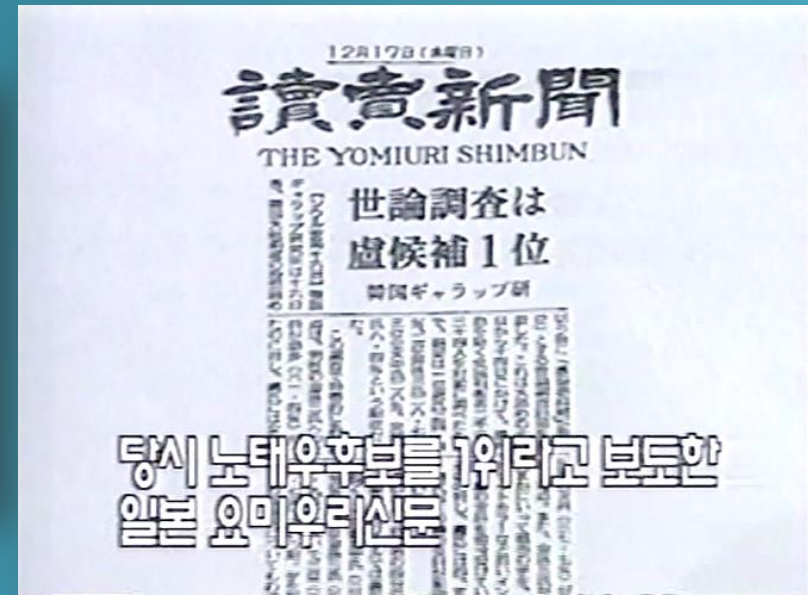
2000.

MBC '성공시대'



2000.

MBC '성공시대'



2003.

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갤럽 논문상 제정

★ ★
調査연구에
 기여한
우수論文을
 공모합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Gallup Korea)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조사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 및 제반 사회 활동에서 과학적 접근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 12회 한국갤럽논문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1. 한국갤럽학술논문상 (Gallup Korea Awards)

- ① 공모대상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조사연구 관련 논문
- ② 시 상 한국갤럽상 (1편 1,000만원)
우수상 (4편 이내 각 500만원)

2.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 (Gallup Korea Dissertation Awards)

- ① 공모대상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내소재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가 수여된 조사연구 관련 학위 논문
- ② 시 상 최우수상 (1편 300만원)
우수상 (4편 이내 각 200만원)

※ 수상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지도상"을 시상합니다.

3. 추천 및 응모 절차

- ① 기 간 2014년 3월 10일 ~ 2014년 4월 25일

② 추천 및 응모 방법

한국조사연구학회 홈페이지 www.kasr.org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상운영위원회 총무 계통오 교수 (국민대)
gallupaward@gmail.com, 02-910-4434

4. 심사 및 시상식

- ① 심사결과 5월 말 한국조사연구학회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주요 일간지에 공고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 ② 시 상 식 2014년 6월 13일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

※ 역대 수상자 및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04. 6

한국갤럽 창립 30주년



2006.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통계학 연구의 글로벌 리더 한국통계학회

Low hour cotton you succeed with our



한국통계학회-한국갤럽 학술상 제정

▶ 역대 학회상 수상자

HOME > 학회소개 INFORMATION > 역대 학회상 수상자

한국통계학회 한국갤럽학술상	신진통계학자 학술논문상	학술진흥상	공로상
통계학 응용상	감사패	대학원생발표논문상	포스터논문상

● 한국통계학회 한국갤럽학술상

구분	년도	성명(소속)
1회	2006년	박병욱(서울대)
2회	2007년	신동완(이화여대)
3회	2008년	이영조(서울대)
4회	2009년	이재원(고려대)
5회	2010년	이상열(서울대)
6회	2011년	김태윤(계명대)
7회	2012년	박동호(한림대)
8회	2013년	구자용(고려대)

2010's

- 2011. 여론조사로 본 철학, '한국인의 철학' 발행
- 2011. 휴대전화RDD-CATI 시스템 구축
- 2012.1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프로그램 도입
- 2012.1 사내 ERP 시스템 정식 오픈
- 2012.12 제18대 대통령선거 예측, 적중
- 2013.6 사옥 '인왕마루' 리뉴얼 오픈
- 2013.9 박무익, 통계 분야 동탑산업훈장 수훈
- 2013.12 한국유니세프위원회 누적 후원금 1억원 돌파
- 2014.6.17 창립 40주년

2011. 여론조사로 본 철학, '한국인의 철학' 발행

The Philosophy of Koreans

The first approach on the Korean philosophy based on a public opinion poll



“여론 조사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 뜻에 문제점은 없는가?”
“한국의 철학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인의
철학

여론조사로 생생하게 밝힌 한국 최초의 철학 탐구서

한국인의 철학

The Philosophy of Koreans

The first approach on the Korean philosophy based on a public opinion poll

철학교수 4인이 한국 철학의 핵심 문제에 대해 해석과 진단을 내리고 그 갈 길을 묻는다.

*철학은 결과물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유일한 학문

*동양 철학이 관심만큼 발전하지 못해서 답답

*유가, 도가, 불교 사상이 혼재된 민중의 가치관

◎ 송영배 명예교수(서울대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값이 언급되는 철학자는 교과서에서 언급된 정도와 비례

*확실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 실감

*점은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특징

◎ 이태수 명예교수(서울대 철학과, 서양 고대철학 전공)

*철학 교육만큼은 성숙한 교육적 노후 필요

*전통과 근대의 단절로 인한 이중 구조를 정리해야

*철학적 성찰이 없는 국가 발전은 불가능해

◎ 손동현 교수(성균관대 철학과, 독불철학·존재론 전공)

*철학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상

*글로벌 시대 보편적 소통 수단은 논리

*한국인의 에너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 중

◎ 황경석 교수(서울대 철학과, 윤리학 전공)



한국갤럽 GALLUP KOREA



2012.1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프로그램 운영 시작

1.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Daily Opinion Index)

2012년 1월부터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휴대전화 RDD 조사를 연중 실시해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공개합니다.
한국갤럽 자체 기획으로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했으며,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연중 지속적으로 주 4일 추적 조사합니다.
- 대표성: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2. 조사 방법 / 지표 산출 방법

한국갤럽 전문조사원이 무작위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매일 300명 이상, 매주 1,200명 이상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성/연령에 따라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 지표는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 지표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비율로 셀(Cell) 가중

3. 조사 내용

-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1988~2014)
- 정당 지지도
- 주요 정치-경제-사회-생활-문화 이슈

4. 자료 공개

- 홈페이지 www.gallup.co.kr
- 트위터 @GallupKoreaNews
- 블로그 gallupkorea.blogspot.com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뉴스레터
- 문의: 02-3702-2100(대표), press@gallup.co.kr

오늘 한국인의 생각이 궁금하십니까?

1974년 문을 연 저희 연구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40년간 얻은 명성은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012년부터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Daily Opinion Index)을 도입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次) 하나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우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실립자)

2012. 12

매일경제 A28
2012년 12월 23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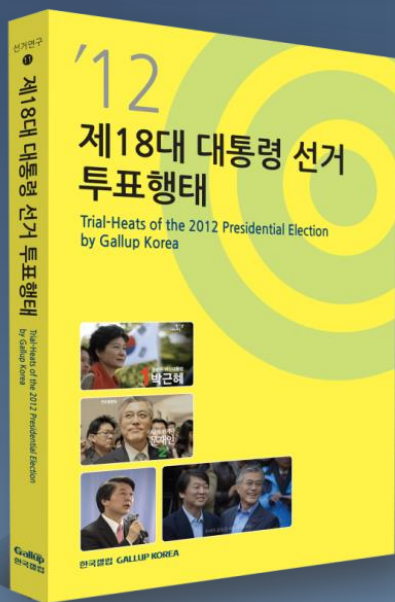
매경이 만난 사람 WEEKEND

제18대 대통령선거 예측

여론조사의 산증인 박 무 익 한국갤럽회장 18대 대선을 말하다

‘원칙의 박근혜’ 국민신뢰 얻었다 내세울 브랜드가 없었던 문재인 단일화 협상때 모든 걸 던졌어야

마음에 좋은 이웃집 아저씨, 박무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의 첫인상은 소탈하고 넉넉해 보였다.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박 회장을 만나 이번 대선에 특징과 박근혜 당선인이 승리하게 된 요인에 대해 물어봤다. 선거와 여론조사에 대해 최근작을 찾아나가는 모습은 꾸준했던 첫인상과는 달리 세련되고 분석적이었다. 박 회장은 이제 임시 대선을 앞두고 지난 11일 대경 이노비스트호텔 박무익 강연에서 이번 대선은 박 당선인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강연에서 박 회장은 “문재인 후보가 한 번은 하늘을 대신할 정도로 대선판을 뒤흔들면 패배를 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향기를 맡고 있다.

▶구신 박근혜라는 인물을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인정받고 신뢰를 얻은 이미지를 지녔다. 많은 유권자들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잃어왔던 삶의 귀환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러스트 레디에서 활동한 것이나 당이 뒤처져 처지를 때보다 구한 정치관심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원칙’을 강조하고 끝까지 이를 지킨 것도 호감을 받았다. 새누리당으로서도 지난 총선당선을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후보를 낸 셈이다.

▶또 다른 승리의 요인을 꼽는다면, ▶보수파의 총궐기이다. 역대 대선에서 이번처럼 보수 진영이 분심 적이 없었다. 선거관리가 안일수 전 후보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치열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후보가 TV 토론에 나서서 정찰자 못 한 인상을 한 것도 50~60대에 유권자의 마음을 끌어들였다. 건전한 심리를 가진 50대 이상이 “저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다.

▶대선 기간 중 ‘여당 후보는 상이관을 의의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을 제대로 부각시켜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임이 보여준 그로써 충분했다. 여당 후보로서 그 형에 초점을 맞춘 선거인들을 전개해나갔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상대편을)상관하지 않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번 대선은 안 전 후보가 아닌 선거판이었다. 그러나 그가 단일화 과정에서 김라스레를 시범로 포괄해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그렇다. 단일화 과정에서 아쉽던 것이 전 후보가 안 후보 쪽 제안을 받았어야 했다.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가 10% 정도 더 높았을 것이다. (조진)에게 한 것을 잘못했다. 전 후보가 한 번은 하늘을 대신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즉 대선 레이스 도중에 판을 흔들 대항 이유를 만들어야 했다.

▶인구 구성의 변화도 전 후보에게 불리했다고 생각된다. ▶세대별 인구 구성을 보면 전과 비교하면 급변할 수 있다. 10대 인구는 20~30대가 1990년 50대 이상 1024만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30대가 154만명으로 줄어든 데 반해 50대 이상은 무려 162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50대 인구가 늘어난 50대 이상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박 당선인이 인구구조상 유리했다.

▶결론은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가난이 한국사회의 원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사회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대기업의 실적상장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인 빈곤감이 커졌을 수도 있겠지. ▶내가 사는 경상도, 호남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을 보면 다르다. 그 지역을 다룬 순가 실험적으로 진행한다는 두려움이 자발적으로 다가왔다. 그 반면 해 대 기업들은 과도한 이익을 챙기며 저 저지민을 생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세기간 중 박 당선인은 많은 반박을 했다. 이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었을지. ▶과수기 반박을 너무 많이 했다. 속까지 당선

본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의 전화시스템을 구축했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연결하게 해서 전화가 걸리게 된다. 무작위 표본추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사는 모두 영외된다.

▶한 나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무작위 표본추출 개념을 적용하면 전체 미국 인口中에서 100명 정도만 조사해도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1935년에 만들어진 하나의 통계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무작위) 전체 100명만 뽑으면 +3% 오차도 미국 여론을 알 수 있다. 한 번도 미친 바가 없다.

▶전체 국민이 아닌 표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표본을 뽑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불문이다. 기업 전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가정하자. 전국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라면 1000명 중 240명은 서울에서 뽑아야 한다. 이렇게 무작위 표본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조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상당수 여론조사가 있었다. 왜 그런가. ▶전국의 많은 여론조사 기관은 현재에도, 직원이 15명 안팎에 불과한 곳도 있는데 이런 규모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조사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의 여론조사는 많은 샘플링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ARS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질문으로 전화를 걸어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미리 녹음된 음성파일을 듣고 전화기의 번호를 눌러 답하는 방식이다. 약 100명 중 95명이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어내면 95

▶18대 대선 박근혜 당선 이유

인물론서 우위·이정척 역풍에 5060 대결 집

▶文-安 단일화 불구 왜 패배했나

文, 국가비전 제시 못한채 安에게만 매달려

▶빛나간 여론조사 왜?

영세업체 난립... ‘랜덤 샘플링’ 원칙 못지켜

2013. 9

박무익 회장, 통계 분야 동탑산업훈장 수훈



2013. 12

한국유니세프위원회 누적 후원금 1억원 돌파



90호(2014-04~06)

[전체보기 >](#)

[다운로드 >](#)



89호(2014-01~03)

[전체보기 >](#)

[다운로드 >](#)



88호(2013-10~12)

[전체보기 >](#)

[다운로드 >](#)



87호(2013-07~09)

[전체보기 >](#)

[다운로드 >](#)



86호(2013-04~06)

[전체보기 >](#)

[다운로드 >](#)



85호(2013-01~03)

[전체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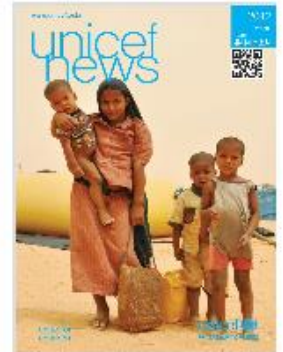
[다운로드 >](#)



84호(2012-10~12)

[전체보기 >](#)

[다운로드 >](#)



83호(2012-07~09)

[전체보기 >](#)

[다운로드 >](#)

2014.6.17

한국갤럽 창립 40주년

오늘의 한국갤럽으로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갤럽 40년,
몸담았던 이들의 생생한 체험과
오래 지켜봐 주신 분들의 소회를 모아
또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곳은 박무익 회장이
2013년갤럽 인터내셔널 로마 회의
참석 차 방문한 카프리 해입니다.
(Photo by 박무익)

1974년부터 2014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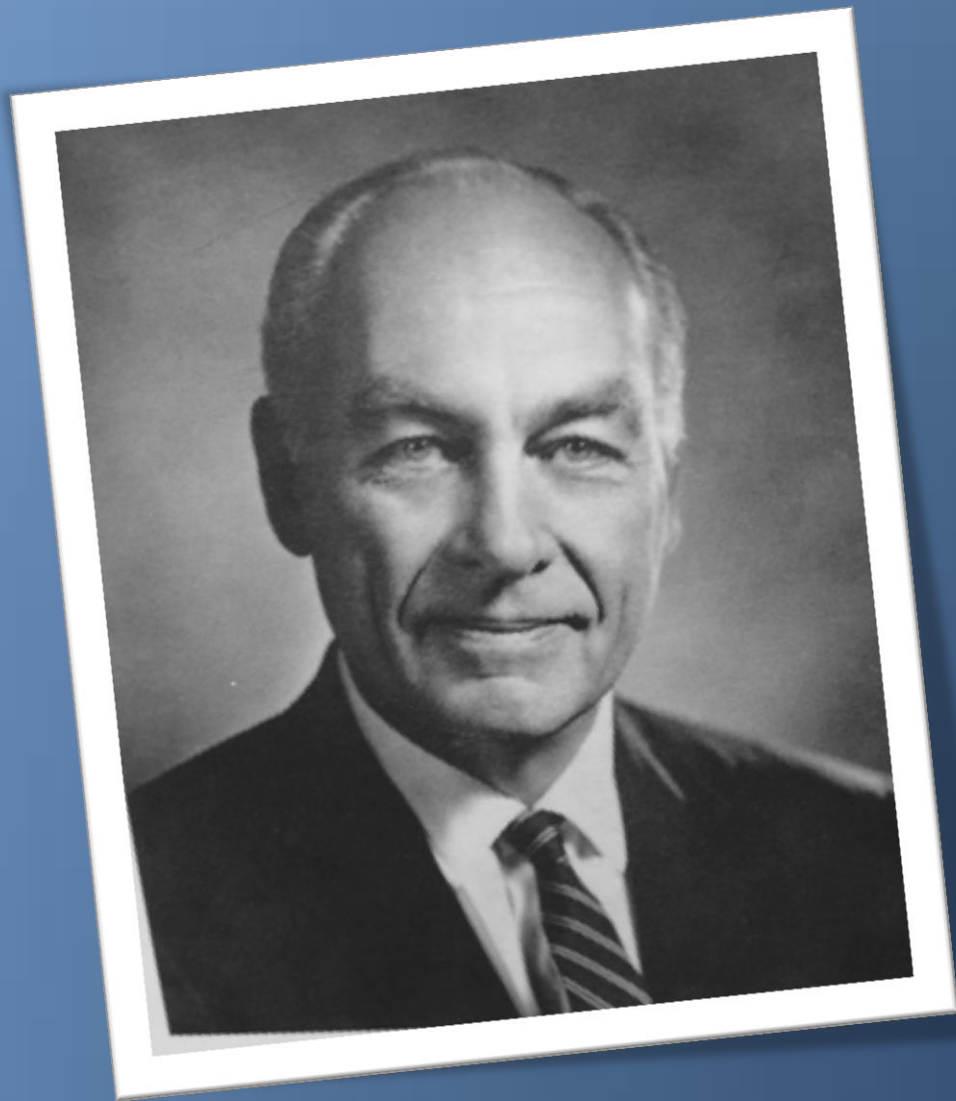
한국갤럽의 어제와 오늘, 한국의 조사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88편의 글 모음집



- Gallup International의 친구들
- 한국갤럽을 키워준 클라이언트들
- 조사 방법을 알려준 선생님들
- 걸음마의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1987년, 여론조사의 꽃망울을 터뜨리다
- 1992년, 첫 시험 비행의 현기증
- 1995년, 신사동 시절 마케팅조사쟁이들
- 1997년, ‘1% 승부’를 함께한 동지들
- 2004년 창립 30주년, 역사는 계속된다
- 2014년, 갤럽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 한국갤럽을 지켜보는 사람들

ISBN 978-89-93516-10-4 | 500페이지 | 20,000원

구입 문의 02-3702-2100



Dr. George H. Gallup
(1901-1984)

조지 갤럽 박사님,
당신을 기억합니다.

Gallup International의 친구들

Gallup International의 친구들 | 조지 갤럽 박사와의 첫 만남

“우리 우정을 잊지 말게.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도...”

- George H. Gallup / Gallup International 설립자



조지 갤럽 박사와의 첫 만남
1979년 Gallup International 호주 회의

Gallup International의 친구들 | Norman Webb

“한국갤럽과 박무익 소장은 활발한 활동과 성실한 회원으로 존경을 받았고 다른 회원들과 우정을 쌓아 나갔다.”

- Norman Webb / 전 Gallup International 사무총장



1978년 경주, Norman Webb, 박무익, 이지마 켄지

Gallup International의 친구들 | 이이지마 켄지

“니끼 씨는 생전에 가끔 생각이 나는 듯 ‘박 소장이 처음 도쿄에 왔을 때, 조사라는 일이 한국에서 제대로 될까요? 돈벌이가 될까요? 라고 질문해서, 일본에서도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요 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갤럽의 대활약을 보면 니끼 씨의 답변은 정확했다고 볼 수 있다.”

- 이이지마 켄지 / 전 일본 리서치센터 디렉터



1979년 Gallup International 호주 회의

Gallup International의 친구들 | 1982년 샌프란시스코 갤럽국제회의의



앞줄 왼쪽부터 조지 갤럽 Jr., 노만 웹, 박무익, 조지 갤럽 박사 부부

Gallup International의 친구들 | Merial J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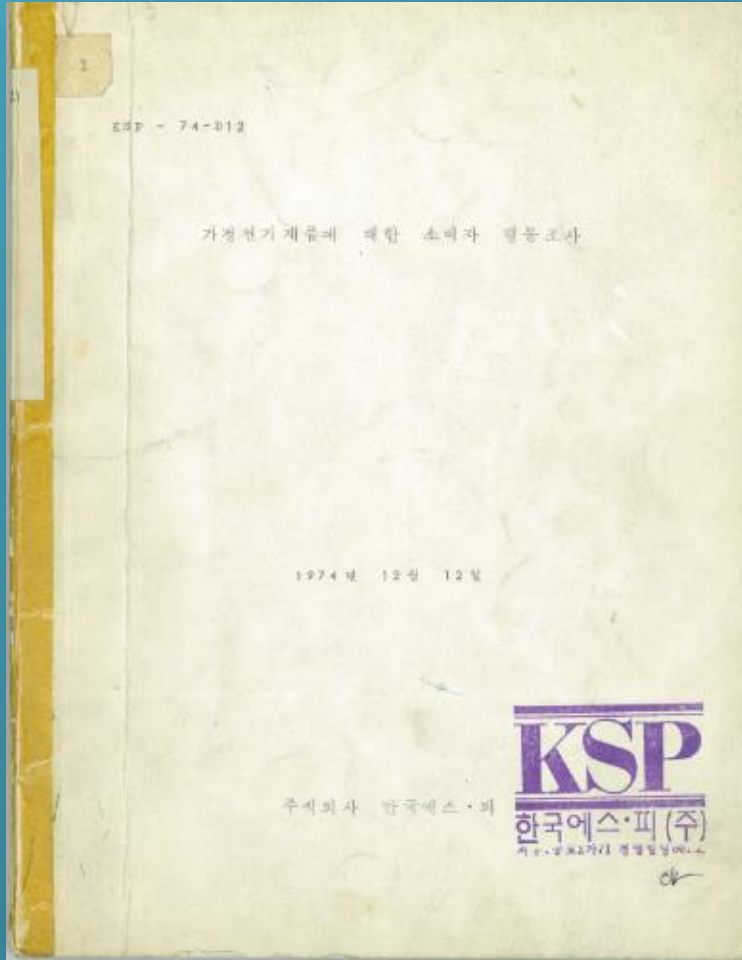
“모든 회원들은 주최 측인 한국갤럽의 환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환대의 나라’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일련의
행사들은 아낌없이 제공되었으며, 유쾌한 기억으로 남았다.”

- Merial James / 전 Gallup International 사무총장



한국갤럽을 키워준 클라이언트들

한국갤럽을 키워준 클라이언트들 | 한국갤럽의 제1호 프로젝트



1974년 12월 가정전기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조사 보고서
(한국갤럽의 두 번째 보고서)

“어느 날 그는 ‘이제 금성사도 과학적인 마케팅 관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시장조사’를 하란다. 경영학 교과서에서 본 듯한 단어이기도 해서 이야기를 진전하다가 프로젝트를 의뢰하기로 했다. 1974년 9월로 기억한다.”

- **김양일** / 전 인간능력개발원 원장

한국갤럽을 키워준 클라이언트들 | 1978년 겨울의 종로2가 경영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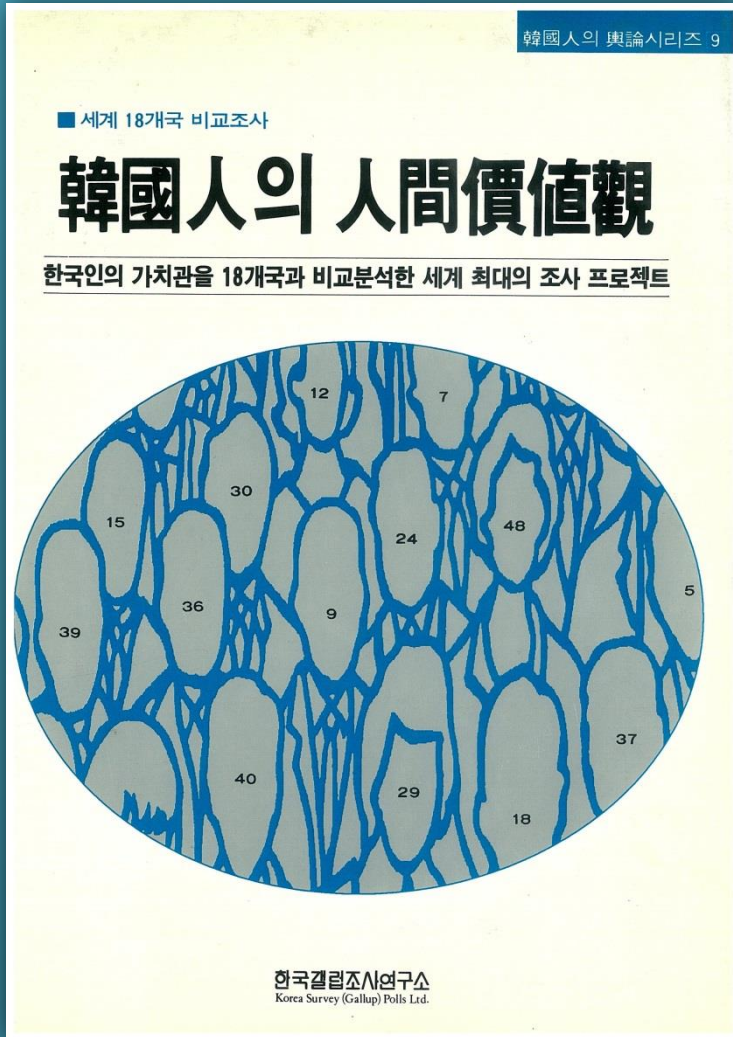


2014년 지금도 남아 있는 종로2가 경영빌딩

“종로2가 로터리 삼화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있던 경영빌딩을 찾아갔다. 당시 난방상태가 안 좋아 추운 사무실에서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코트를 등에 걸친 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박무익 소장과의 인사를 나눈 것이 처음 만남이었다.”

- 허 건 / 전 LG전자 중국지주회사 상무

한국갤럽을 키워준 클라이언트들 | 팔리지 않는 조사책 꾸준히 발간



“<한국인의 여론 시리즈>는 박무익 소장의 고집으로 출간됐지만 우리나라 조사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조사 책들이라고 생각한다. 잘 팔리지도 않는 책을 여유 없던 시절에 꾸준히 발간해 내던 박 소장의 용기는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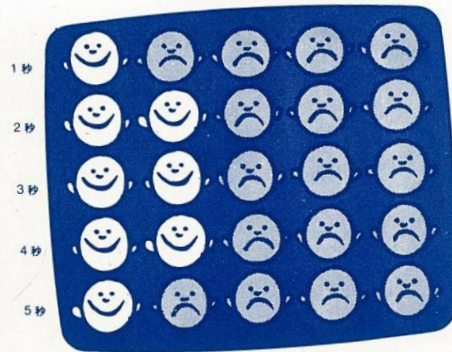
- 박찬원 / 전 코리아나화장품 대표이사

한국갤럽을 키워준 클라이언트들 | 20년 전부터 광고 과학화를 말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귀사의 TV廣告가 경쟁사 TV廣告와 비교하여 얼마나 효과가 더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곧 알 수 있습니다.

A社の TV廣告 효과.



(AD-Score*가 TV廣告效果를 秒단위로 평가한例)

서울에서는 1500명의 TV廣告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짧은 시간만에 사라지고 있는것도 많으며, 1년간 20,30億...의 廣告費를 투입하고도 市場占有率(Market Share)이나 商標認知度(Preference)를 조금도 상승시키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廣告管理不在의 큰 원인들은 중역들이 모인 TV-CF 試寫會나 廣告案 決裁會에서 廣告가 느낌과 취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輕率 否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TV 廣告案에 대한 소비자들의 反響과 평가자료"를 첨부하는 廣告人이 거의 없으며

국내최초 컴퓨터에 의한 TV廣告效果 측정프로그램 AD-Score® 導入

秒 단위로 TV-CF反應을 추적하는 AD-Score*

최근 본 연구소는 이 CAT System을 이용하여 TV-CF 事前테스트를 위한 전문프로그램인 AD-Score*를 개발했습니다. AD-Score*는 受試者가 廣告를 秒단위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이·성별·직업·성도·성향·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각의 흐름이 파악됩니다. 나아가 反應時間(Reaction Time)의 체크로 閣下意識(Subliminary Perception)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廣告效果 측정 기구인 "Eye Camera"를 훨씬 능가하는 혁신적인 廣告診斷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TV廣告의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AD-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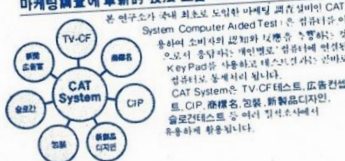
AD-Score*는 새 TV-CF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사 TV 廣告와 경쟁사 TV 廣告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비교 테스트되기 때문에 현재 TV 廣告의 계속 興否에 관한 意思決定 및 다음번 廣告 제작 방향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TV廣告가 경쟁사 TV廣告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어디있는가?" 하고 요구할 줄 아는 經營者는 더욱 할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歐美 諸國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調査의 최신 장비인 CAT System (Computer Aided Test)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TV-CF 事前診斷"과 "TV 廣告 중간 점검 테스트"를 위한 전문프로그램인 AD-Score*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AD-Score*를 활용하시어 廣告管理의 과학화를 이루시고 막대한 廣告費의 낭비를 막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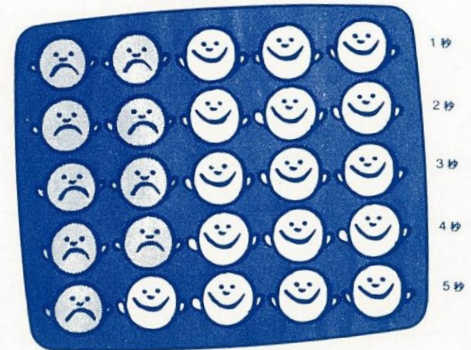
AD-Score*의 측정영역

1. 廣告개념·訴求點의 妥當性 검증
2. 廣告(伝達) 과정별(AIDMA 단계) 효과성 체크
3. 廣告 디자인 요소(인물, 음악, 사진, 배후상태)의 개선점 제시
4. 廣告가 구매의사에 끼친 영향 분석

마케팅調査에 革新的 技法 도입 CAT System



B社の TV廣告 효과.



(AD-Score*가 TV廣告效果를 秒단위로 평가한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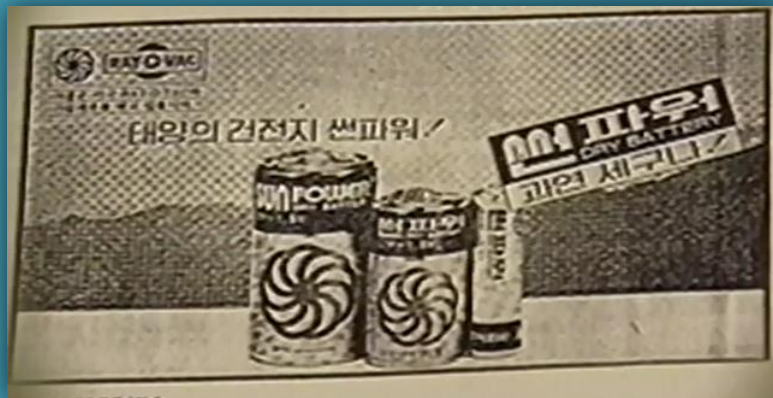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울 중로구 사직동 221 Tel. 736-8448-8628

1990년대 초 AD-Score 소개서

“20년 전부터 박 소장은 나를 만날 때마다 광고 효과 측정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갤럽은 예전부터 금성사, 럭키의 광고 효과 측정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 이인호 / 전 LG애드 부회장

한국갤럽을 키워준 클라이언트들 | 1억 2천만불짜리 ‘썬파워’ 상표 작명



“우리는 박무익 소장으로부터 네이밍 리서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사의 사활이 걸린 신규 상표를 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공모, 그룹 토론, 소비자 반응 조사를 거쳐 최종 간부회의에서 고민 끝에 탄생된 이름이 바로 ‘썬파워’ 건전지다.”

- 정영수 / 전 서통 대표이사

한국갤럽을 키워준 클라이언트들 | 목숨을 건 쿠데타의 순간들



“아무 말이 없었다. 답답하긴 그쪽이나 우리나라만가지였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틀려서, 당선자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만 한동안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될 뿐이라는 정도로 서로를 위로했다.”

- 황 헌 / 문화방송 보도국

한국갤럽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한국갤럽의 선생님들 | 과거의 비늘조각(片鱗)들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적 호기심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하는 ‘끼’가 있어야 전문가
로 성공할 수 있다. 조사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다.”

- 이만영 /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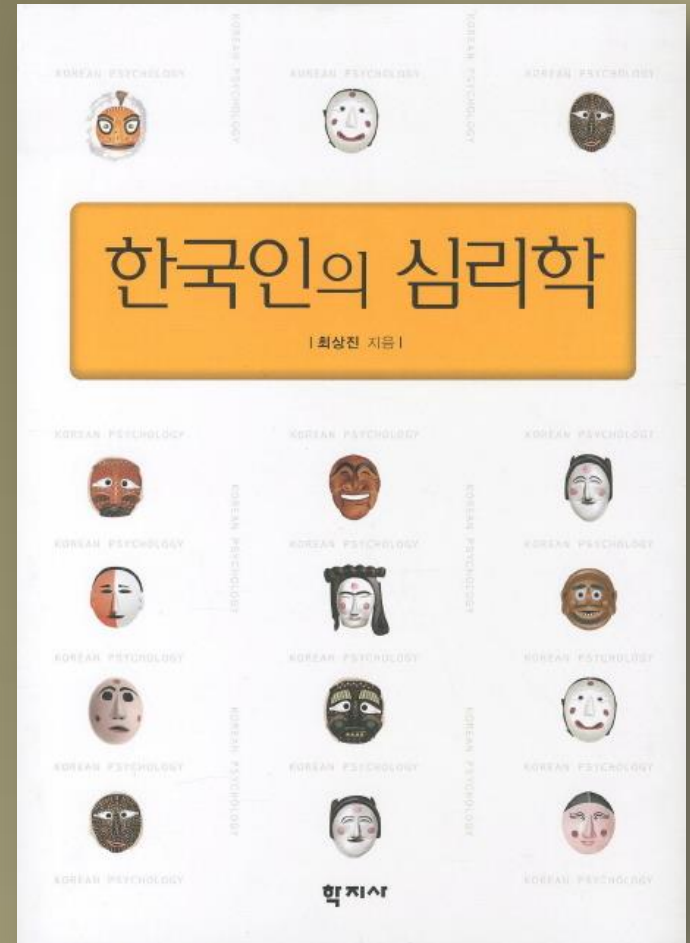


1999년 6월 신라호텔, 한국갤럽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이만영 교수님

한국갤럽의 선생님들 |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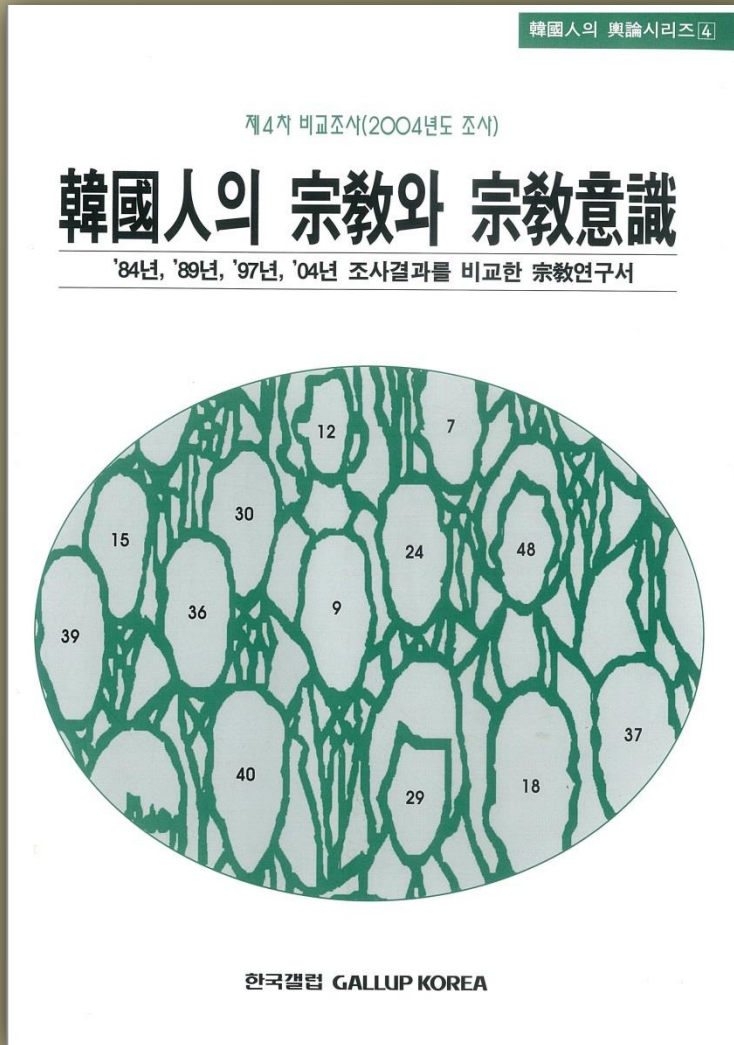
“어찌됐든, 박 소장은 괴짜다. 술집에 가셔도 술만 마셨지 여자하고 연애 한번 못하는 것도 비정상이다. 자기 회사의 중요한 클라이언트에게 그 알량한 중국요리 하나 사주지 않는 것도 탈정상이다. 그런데도 연구만 잘하고, 장사만 잘하니, 내가 비정상인가 박 소장이 비정상인가.”

- 최상진 /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최상진 교수님은 한국인 고유의 심리 연구를 개척했다. 2011년 별세.

한국갤럽의 선생님들 | 내 강의의 ‘약방의 감초’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은 내 강의에 약방의 감초로 등장한다. 한국갤럽 조사의 신빙성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역대 선거의 정확한 예측에 힘입어 학생들은 내 강의에서 현실성을 직감한다. 철학자는 감히 이렇게 현실에 참여한다.”

- 심재룡 / 서울대 철학과 교수

한국갤럽의 선생님들 | 21세기의 한국갤럽을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은 ‘조물주는 복잡하기는 해도 악하지는 않다’고 하여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어렵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과정이므로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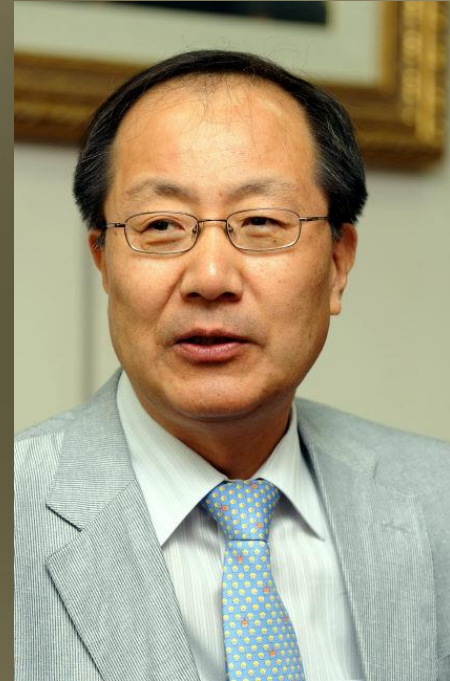
- 이재창 /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한국갤럽의 선생님들 | 한국 社會調査史에서 ‘한국갤럽’의 의미

“한국갤럽은 사회여론조사 분야의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한국갤럽 출범 40년을 축하하하면서, 앞으로도 조사 학계 및 업계의 큰 형으로서 이 분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변함없는 기여를 기대해본다.”

- **홍두승**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갤럽의 선생님들 | 좋은 인연(因緣)



“경영인들은 나름의 공통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박무익 소장만은 그 범주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다. 서민적인 풍모에 유머러스한 표현을 즐기는, 무척 인간적이란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상큼하다고나 할까, 하여간 그 사무실을 나올 때 마음이 아주 가벼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 이계오 / 한국갤럽 자문교수

한국갤럽의 선생님들 | 德不孤 必有隣

“한국갤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좋은 전범(典範)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조사업계의 질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조성겸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갤럽이 걸음마의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누가 그 시절에 ‘여론조사’를 생각할 수 있었는가?
‘여론’도 없었을뿐더러 ‘여론조사’는 생각도 하지 못
하던 시절이다. 민주주의란 말이 마치 공산주의처럼
들리던 때, 민주주의란 말을 하면 마치 역적으로 몰
리는 기분이 들었던 당시, 박 소장은 민주주의의 잣
대에 관한 책을 번역한 것이다.”

- 노익상 /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1977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쓰레기통 속에서도 장미는 피었다



“한쪽 구석자리에 30대 후반의 한 아저씨가 왼손을 연신 흔들고 오른손은 부들부들, 다리는 덜덜덜 떨면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였다 떼었다, 몸을 좌로 비틀었다 우로 꼬았다 하면서 “와!!! 익~싸이팅!”, “으~옥! 노!! 댄~저러스~”를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들은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오! 마이 갓’ 그는 우리의 ‘따’ 박무익 사장이었다.”

- 김진국 / 마케팅인사이트 대표이사
(1978년 갤럽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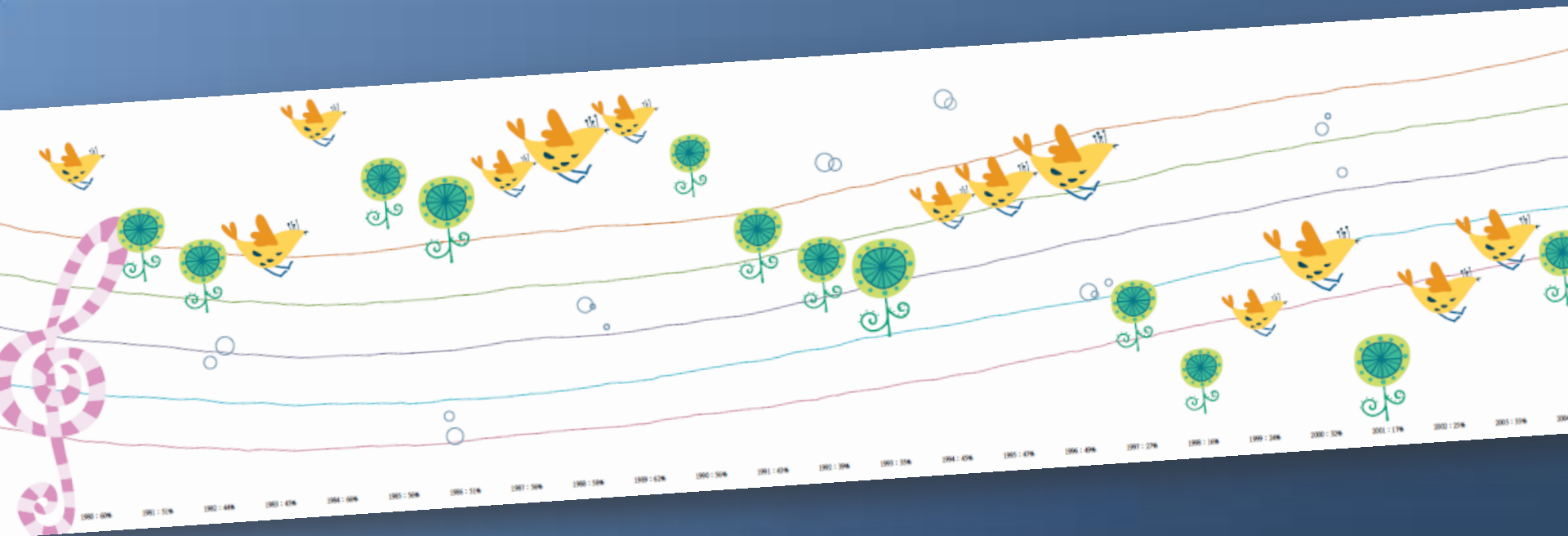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BI(Before IMF) 20년

“1987년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점은 6·29 선언이었다. 그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6·29 선언은 우리나라 시대사의 흐름을 바꾼 큰 사건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한국갤럽도 그 파장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 이흥철 / NI 리서치 대표이사
(1981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1987년, 강렬했던 의미 혹은...



“한 장의 카드를 빼곡히 채운 숫자가 얼마나 어렵게 얻어진 것인지 잘 아는 입장에서는, 매년 그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 최선화 / 전 F-inside 본부장 (1980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EOYP, 한국갤럽이 걸어온 발자취



“첫 만남에서 소장님은 ‘흔한 커피보다는 술 한 잔 합시다’라는 말과 함께 책상 서랍에서 ‘캡틴Q’라는 럼주를 꺼내 따라주었다. 조사협이 차 방문한 고객에게 대낮에 커피 대신 술 한 잔을 마시게 하는 기이한 행동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 김덕구 / 전 한국갤럽 상무 (1982년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1980년대 한국갤럽

“당시 열악했던 시장여건 속에서도 조사 방법론이나 조사도구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리서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갤럽이 첫 직장 이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 **한기룡** / 전 M&C 대표이사
(1983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어스푸레 밝아오는 사직단을 바라보며



“1985년 5월 어느 날, 사직공원 건너편 빨간 3층 건물, 그 건물 3층 외벽에 매우 단순하게 ‘Gallup’이라는 하얀 영문 로고가 보인다. 공원 실록을 배경으로 이따금 차량 소리만 날 뿐 사직동은 조용하고 아늑하다.”

- 장 훈 / 전 한국신용정보 실장 (1985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사직공원 건너편 빨간 건물의 하얀 갤럽

“어렵게 어렵게 조사가 진행되고 자료를 받기로 한 기한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사가 끝난 질문지 500부 봉치를 가지고 기차를 타려다가 공안당국에 빼앗겼다는 것이다. 당시 민감한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 해서 한국이미지, 올림픽 관심도만 넣어 조사했는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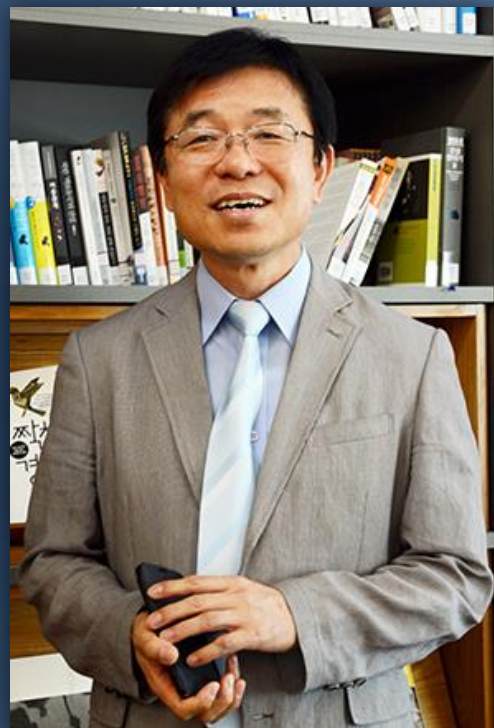
- 나선미 / 전 동아일보 전문위원 (1985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1988년, 최초의 소련·중국 여론조사

“요즘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그러나 나는 한국갤럽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오늘날까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 신창운 / 전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1988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Gallup Effect’

“선거 다음날 아침 9시, 김영삼 후보의 당선 소감이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나왔다. 만감이 교차했다. 수개월 동안이었지만 나를 던지고 일한 결과를 봤다.”

- **지용근** / 글로벌 리서치 대표이사
(1989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일등병이 1992년 대선 예측을 맡다



“당시 내 눈에 비친 박 소장의 모습은…”

- 옷차림 : 어허, **계절이 없다**. 늘 그 모양새다. 진한 색은 없고 **언제나 흐릿한 색상**. 넥타이도 구식.
- 두발 : 자택에 **세면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말씨 : 결정적인 상황에서 존칭과 경어가 사라진다. **습관적으로 반말이다**. 이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딱하게도 본인은 모른다.”

- **김상희** / 전 한국갤럽 부소장 (1988년 갤럽 입사)

한국갤럽이 첫발을 옮길 때의 친구들 | 후배들에게 띄우는 편지

그리고...

2014년, 박무익과 함께 걸림의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

강시중	김민영	김유진	김해연
강일경	김민재	김은정	김혜리
고광일	김배봉	김재선	김호림
고은희	김봉신	김재욱	김희성
고진수	김세화	김정아	나정아
고진주	김수하	김정은	남소정
곽수연	김이향	김종주	남수현
권신정	김영기	김준경	노혜란
김도희	김영일	김지연	류인환
김명진	김영철	김태우	맹진우
김미숙	김우경	김학렬	문창석
	김유나	김한서	민슬기

박명숙	송승봉	이계승	장덕현	조용성
박미선	신미현	이계오	장윤정	조흥찬
박미혜	신영미	이기영	장윤진	주소영
박병일	신정은	이상범	장은영	주현지
박선경	양미예	이상설	장은정	진원창
박성광	양원모	이성화	장은혜	천선옥
박유일	양지연	이소희	전민진	최영신
박재형	양희정	이수진	전영준	최윤희
박주희	오창수	이예지	전정곤	최진아
박현선	오창엽	이유선	정덕환	하미선
박지유	오테광	이은형	정승희	한경석
박현수	유가영	이재근	정은미	한철수
배선아	유경석	이재욱	정지연	한형진
배재성	유은정	이지혜	정지은	허진재
배지연	유은주	이창수	정해영	현정석
서다아	유준오	이희영	조다아	홍성기
서덕희	윤시환	임문정	조민경	홍영택
서미향	윤옥진	임성수	조민교	황승현
손창수	윤지은	임성호	조민아	황용하
	윤혜준	임형섭	조수연	

한국갤럽의 사계

겨울



시무식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영하 10도 기온이라도,
전직원이 한데 모여
공식적으로 술 권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갤럽만의 시무식





- 야외 체육대회 또는 봄꽃놀이 산행
- 인왕,북악 스카이웨이 드라이브
- 부서별 봄꽃놀이 런치, 사진 컨테스트



여름

- 6월 17일 창립 기념 행사
- 조사연구학회-한국갤럽상 시상
- Free Beer Day 또는 수박 파티



당신들이 있었기에
한국갤럽의 오늘이 있습니다



가을

- 단풍놀이 산행
- 인왕마루 홍시먹기 이벤트
- 한국통계학회-한국갤럽학술상 시상
- 한해의 마무리, End of Year Poll



Quality First

since 1974



조사회조사 40년



가르침에게 10
33
1974-2014

문다

40

조사이역사 40년

Gallup

한국갤럽은 2015년에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사회 여론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갤럽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매주 새로운 조사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www.gallup.co.kr

